

금년 여름철 전력수급 이상 없다

- 최대전력수요 5,808만kW, 공급능력 6,458만kW로 공급예비율 11.2% 확보 가능 -
- 수요관리시책 강화를 통해 원전5기 물량인 538만kW의 최대수요 감축 -

- ① 이상고온으로 최대수요가 6,000만kW까지 상승해도 예비율 7.6%유지
- ② 비상시에 대비한 비상수요관리 461만kW 별도확보(예비율 7.7%증가효과)
- ③ 예방정비 일정조정, 적극적 수요관리지원, 전기소비절약 홍보를 통한 차질 없는 전력공급 달성
- ④ 저소득층 5만가구 고효율조명기기 교체사업 6월부터 본격 착수
- ⑤ 태풍, 장마철 등 우기에 대비한 가스·전기설비의 특별안전관리 강화

■ 산업자원부 정세균(丁世均) 장관은 6.2일 한전, 에너지관리공단, 발전회사 등 전력분야 유관기관장이 참석한 가운데 여름철 전력수급안정을 위한 대책을 논의하였음

- 정세균 장관은 최근 전력수요가 6~8%이상 고성장하고 있는 상황에서, 금년에도 전력수요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, - 전력공급능력의 확보, 수요관리 강화, 발전소 고장방지, 전기안전 확보 등 관련기관의 대응태세와 추진계획을 점검하고, 안정적인 전력공급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하였음

[문의 : 산업자원부 전력산업팀 (02)2110-5472]

당진화력 5·6호기 준공식 개최

- 초초임계압 화력발전 시대 열려 -

■ 한국동서발전(주)(사장 이용오)는 6월 9일 오전 11시 충남 당진군 석문면 당진화력발전소 구내에서 정세균 산업자원부 장관, 국회의원 등 주요인사와 지역주민 등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당진화력 5·6호기 준공식을 가졌음

- 당진화력발전소는 동서발전의 주력발전소로서 서울과 인접한 서해안지역에 위치해 수도권 전력수급 불균형 해소와 국내 전력계통 안정에 크게 기여하고 있으며 특히 이번 5·6호기 준공으로 하계 전력수급 안정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보임

■ 당진화력 5·6호기는 국내 최초로 초초임계압 방식으로 설계된 50만kW급 석탄발전소로 한국전력기술(주)가 설계를, 두산중공업(주)가 기자재공급 및 시공을 담당했으며 지난 2002년 9월에 착공한 이후 총 공사비 1조 870억원과 연인원 200만명의 인력을 투입하여 3년 7개월만에 완공하였음

- 기존 초임계압 발전소보다 연간 약 15만톤의 연료절감 및 80만톤의 배출가스량이 저감되는 최첨단 고효율 발전설비인 당진화력 5·6호기의 준공으로 국내 전력사에 초초임계압 발전시대가 열리게 되었음.
- 또한 탈황, 탈질설비 및 전기집진기 설치 뿐 아니라 배출가스 자동측정 시스템과 원격측정 시스템의 도입 등 각종 환경오염 방지설비와 24시간 연속으로 감시가 가능한 자동환경감시 시스템을 구축하여 정부 환경정책에 부응하는 세계적인 친환경발전소의 면모를 갖추었음

[문의 : 산업자원부 전력산업팀 (02)2110-5475]

사회복지시설 고효율조명기기 무상교체 실시

- 2008년까지 2,055개 복지시설교체, 가정집 1만가구의 1년간 전력사용량인 연간 33백만kWh 절감 -

- 산업자원부는 2008년까지 2,055개소 사회복지시설을 대상으로 일반조명기기를 고효율기기로 무상 교체하여 연간 33백만kWh의 전기를 절약하는 사업을 전개한다고 밝혀, 에너지절약과 함께 어려운 이웃에 사회봉사의 훈훈한 정을 나누고 있다.
 - 정세균 산업자원부 장관은 6.19일(월) 오전, 전력수요가 많아지는 여름철을 맞이하여 금년도 사회복지시설 고효율조명기기 교체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'시립엘림 노인전문요양원' (경기도 군포시 산본 소재)을 방문하여 고효율형광램프 설치에 참여하고 위문품을 전달하였다.
- 이 자리에서 정장관은 "2004년도에 이어 2008년도까지 2,055개소에 달하는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고효율조명기기 교체 작업을 모두 완료할 예정이며, 이를 통해 가정집 1만 가구의 1년 전력사용량에 해당하는 연간 33백만kWh의 전기를 절감함으로써 약 38.7억원의 에너지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"며 점차 지원 대상시설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.

[문의 : 에너지관리팀 (02)2110-5423]

전력산업도 '퓨전기술' 시대 '유비쿼터스 전력' 이 뜬다

- 전력에 센서·정보·네트워크기술 융합... '전력IT 표준화포럼' 출범 -

앞으로 센서, 정보, 무선 네트워크 등 IT기술이 융합된 유비쿼터스 전력이 전력산업의 핵심산업으로 부각될 전망이며, 이와 관련된 기술표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.

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은 전통적 전력산업에 IT기술을 접목한대용량 전력수송 제어시스템, 지능형 송전 네트워크 감시 시스템, 에너지관리 시스템 및 전력선 통신 등의 기술표준 개발을 위해 16일 「전력IT 표준화 포럼」을 본격 출범한다.

전력IT 표준화 포럼은 미국, 유럽, 일본 등 선진국 중심의 전력IT 신기술 개발 및 관련 국제표준 주도에 대응하기 위해 우리나라 산·학·연·협회·단체 등이 공동 협력을 통해 전력IT 기술표준 개발 사업의 체계 확립과 표준 인프라 구축 협력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설립되었다.

[문의 : 전기기기표준과 (02)509-7298]

‘가스사고 없는 안전하고 행복한 삶’

- 정부, 가스업계의 對국민 가스안전 다짐 선포 -

- 「제13회 가스안전축진대회」가 가스업계 관계자 등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6. 23(금) 오전 10시 그랜드 인터콘티넨탈 호텔에서 개최
 - 정부·가스업계의 對국민 가스안전 다짐 선포, 국제세미나, 가스안전 우수사례 발표 등 가스안전을 생활문화로 정착하는 계기가 되었으며,
 - 가스안전 유공자·단체에 56개의 훈·포장 등이 수여되었음
- 산업자원부 차관(김종갑 제1차관)은 치사와 유공자 포상을 통해,
 - ‘안전은 그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투자하는 만큼 확보’ 된다는 강조와 함께,
 - 국민 모두가 가스사고 없는 안전하고 행복한 삶이 되도록 정책적 역량을 기울여 나아갈 것임을 약속하였음

[문의 : 산업자원부 에너지관리팀 (02)2110-5443]

정전시 보상기준 확대 등 전기 소비자 권익보호 강화

- 전기공급약관 개정으로 공급신뢰성 제고와 전기사업자의 책임강화 -

- 산업자원부는 한전의 편의 중심이라고 지적되어온 전기공급약관을 소비자권익보호 중심으로 대폭 개선하여 7.1부터 시행할 계획이다.
- 과거 1일 3시간 이상 정전시 전기요금(1일분 기본요금)을 감면받을 수 있었으나 하반기부터는 1일 1시간이상 정전되는 경우도 전기요금을 감면받을 수 있게 되는 등 전기소비자의 권리가 강화된다.
 - 또한, 동일 변전소에서 수용가 선로로 예비전력 수전시 한전은 기본요금의 5%를 부과하였으나 이를2%로 인하함에 따라 정전에 대비한 산업체의 예비전력 확보 부담도 줄어들게 된다.
- 현재 계약전력 2만kW까지는 22.9kV로 공급하고 초과시는 154kV로 공급하고 있어, 계약전력 2만kW를 약간 초과하는 경우에도 154kV로 전기를 공급 받게되므로 수용가의 선로 공사비 부담이 과중(공사비 차이 약 10배)하였으나 22.9kV의 공급범위를 4만kW까지 확대함으로써 중견 산업체의 초기 공사비 부담도 크게 완화된다.

[문의 : 산업자원부 전기소비자보호팀 (02)2110-5545]